

사설(社說) (3 · 22) 간사이 청년평화문화제 40주년

2022년 3월 21일

사제(師弟)의 신심(信心)이 응결(凝結)된 ‘청년의 탑’

“그 순간 카드섹션은 금색 바탕에 진홍색 글씨로 ‘간사이혼(關西魂)’이라고 그려 냈다. 6층 원탑은 구름 한 점 없는 ‘상승(常勝)의 하늘’에 인간과 인간의 승리의 함성을 쳐 울리며 솟아올랐다.” <‘수필 신 · 인간혁명(新 · 人間革命)’>



© 세이쿄신문사

1982년 3월 22일, 제1회 간사이 청년평화문화제가 오사카(大阪) 나가이(長居) 육상 경기장(당시)에서 거행되었다.

이 해, 창가학회(創價學會)는 ‘청년의 해’라고 내걸고 전진. 세계광포(世界廣布)를 향해 응흔(雄渾)의 지휘를 잡고 있는 이케다 선생님과 함께 전국의 청년들이 용감

하게 일어섰다. 그 중에서도 간사이(關西)는, ‘창가의 사제는 전재하다.’라고 만천하(滿天下)에 나타낸다! – 그 결연(決然)한 맹세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폭우에 휩쓸렸던 전날과는 일변해, 맑은 하늘 아래, 10만 명의 젊은이가 약동한 문화제. 오프닝을 장식한 신회원 1만 명의 입장 행진은 간사이 속에서 일어난 홍교(弘敎)의 기세를 상징했다. 현재의 오사카(大阪) 여성부의 리더도 이 행진에 참가한 한명이다.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지난(至難)으로 여겨졌던 6층 원탑이었다.

간사이문화회관에는 “6층 원탑, 섰나요?”라는 전화가 빗발쳤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숨을 죽이고 성공의 때를 기다렸다. 간사이의 동지들이 문화제에 종사하는 청년의 성장을 기원하며 온 힘을 다해 응원했다. 격려의 주먹밥을 계속해 만든 부인도, 찬바람을 맞으며 연습에 석유난로를 들고 달려온 장년도 있었다. 이체동심(異體同心)의 대연대가 거기에는 있었다.

그날 우뚝 솟은 6층 원탑에는 간사이 전 동지의 기원과 신심(信心)이 응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사카투쟁’ 아래 계승되어 온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투흔(鬪魂)의 승화(昇華)이며, 스승에게 승리를 전하고자 하는 일념(一念)의 결정(結晶)이었다.

이 문화제에는 피폭(被爆) 도시인 히로시마시(廣島市)와 나가사키시(長崎市)의 시장도 참석했다. 평화의 담당자로서의 청년들의 발랄한 모습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 후, 주부(中部)나 사이타마(埼玉) 등에서도 평화문화제가 개최되어 창가(創價)의 청년이 입정안국(立正安國)의 맹세를 가슴에 품고, 사회변혁(社會變革)의 인재(人材)로서 용비(雄飛)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당시의 문화제의 출연자 세대는, 그 후, 각지의 중핵(中核)으로서 21세기의 광포(廣布) 추진(推進)을 담당해 왔다. 지금 차대에 사제공전(師弟共戰)의 혼의 어깨띠를 확실하게 이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의 문은 청년에 의해 열린다.”<소설 『신 · 인간혁명(新 · 人間革命)』 제30권(하) ‘서원(誓願)’ 장>

깊은 혼미(混迷)의 시대에 평화롭고 안온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명의 무대에서 약출(躍出)하는 청년과 함께 스크럼도 굳건히 모두가 청년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다.